

# 갈라파고스 생태 탐방기<sup>1)</sup>

박대문<sup>2)</sup>

(현) 경제학박사, 식물분류기사, 시인

(전)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전) 청와대 환경비서관(관리관)

(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전) 강원풍력(주) 사장

## I. 갈라파고스 개요 및 교통편

### 1. 갈라파고스는 어떤 곳?

갈라파고스, 현실과 동떨어진 독특한 법과 제도를 갈라파고스 법 또는 제도라고도 하는, 한 번 들어본 것도 같고, 생소한 것도 같은 곳이다. 한편, 갈라파고스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 여행가나 생물학 연구자들에게는 평생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 버킷 리스트이다.

남미의 에콰도르(Ecuador)공화국에 속하는 갈라파고스(Galapagos Islands)는 에콰도르에서 태평양 쪽으로 1천km 떨어진 적도 바로 아래에 있는 절해의 외로운 섬이다. 1859년 '종의 기원'을 발표한 찰스 다윈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섬이 이제는 세계적 관광지가 되어 각국의 관광객으로 붐비는 곳이 되었다.

갈라파고스의 정식 명칭은 콜론(Colon)제도이며, 면적은 7,880km<sup>2</sup>, 2만5천명(2010 기준), 인구 밀도는 0.56명/km<sup>2</sup>이다. 20여 개의 크고 작은 섬과 100여 개의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1535년 스페인의 신부 T. 데 베를랑가가 풍랑 속에 표류하다가 최초 발견하였는데, 발견 당시에는 무인도로서 큰 거북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한다. 이들 거북의 등딱지가 안장처럼 생겨 '안장'을 뜻하는 옛 스페인어 '갈라파고'를 붙여 '갈라파고스거북'이라 했으며, 이 제도의 명칭도 여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생명이 살아 숨쉬는 풍요의 섬,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원초의 섬, 원시의 생명력이 그대로 숨을

1) Ecological Exploration of Galapagos Isla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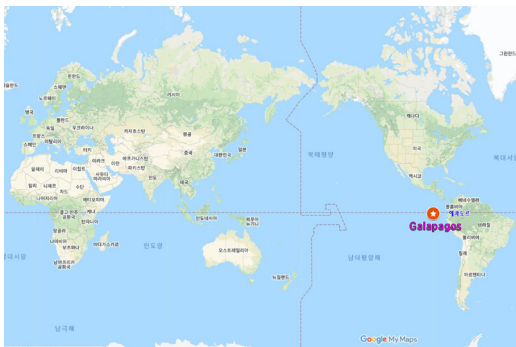
2) PARK, Daemoon, freecolumn group(www.freecolumn.co.kr) E-mail: dmpark05@naver.com

쉬는 곳 갈라파고스를 다녀온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6일간에 걸쳐 갈라파고스의 산크리스토팔섬, 이사벨라섬, 산타크루스섬, 산타페섬을 탐방한 것이다. 이때 보고 느꼈던 이 지역의 자연 생태와 풍경, 이곳 생물들의 생존을 위한 변신과 진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여행 당시의 메모와 기억을 토대로 재정리해 보고자 한다.

## 2. 교통편 및 경유지

갈라파고스는 에콰도르에 속한 영토로서 국제공항이 없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콰도르에 입국하여 과야킬 공항에서 로컬비행기를 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 LA를 경유하여 페루 리마 공항에서 환승,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필자의 경우, 인천국제공항에서 KAL 항공편을 이용하여 15:00에 출발, 11시간 비행 끝에 LA 공항에 도착한 것은 다음날, 현지 시각 09시였다, LA 공항에서 바로 환승을 하지 못하고 일단 미국에 입국 후 바로 출국 수속을 거쳐야만 했다. 불편하지만 미국의 방침이 그러하다고 한다. 수하물 검색을 거쳐 입·출국 수속을 마친 후 LA 공항에서 페루 리마 행 LAN 항공을 탑승, 출발한 시각이 13:05, 9시간의 비행 끝에 페루의 리마에 도착한 시각은 다음날 00:40이었다. 인천에서 페루 땅을 밟기까지 꼬박 24시간이 소요된 셈이다. 이곳 페루 리마에서 다시 에콰도르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약 2시간이 걸린다.

필자의 경우, 바로 에콰도르-갈라파고스로 가지는 않았다. 어렵게 기회를 만들어 남미에 왔기에 2주에 걸친 남미 여행을 한 후에 마지막 코스로 갈라파고스를 다녀왔다. 에콰도르의 과야킬 공항에서 갈라파고스에 입도, 6일간 탐방한 후에 다시 에콰도르 키토 공항- 페루 리마 공항- 미국 LA 공항을 거쳐 인천 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갈라파고스 체류 시기와 기간은 2017.1.13.~18이었다.



<그림 1> 갈라파고스의 위치



<그림 2> 갈라파고스 주요 섬 및 탐방 행로

## II. 갈라파고스, 산크리스토발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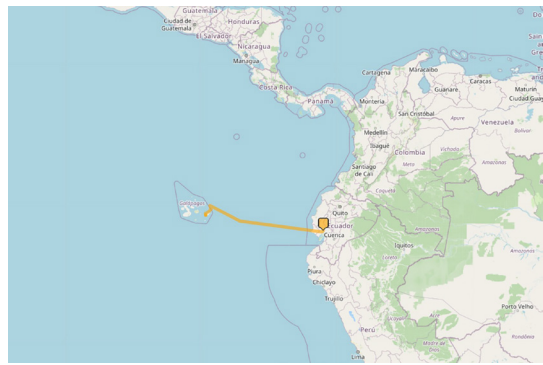
### 1. 에콰도르 과야킬 공항

2주간의 남미 여행을 마치고 나서 갈라파고스를 가기 위해 볼리비아 라파스에서 에콰도르의 과야킬로 가는 08:00 Avianca AV7391 비행기를 탔다. 비행기는 페루의 리마를 경유해야만 했다. 에콰도르 과야킬 공항에 도착한 것은 한겨울인 2017.1.12. 13:10이었다. 하지만 남반부 적도 지대라서 이곳에서는 가장 서늘한 계절인 셈이다. 갈라파고스 비행 일정이 다음 날 아침이었기에 육지 이구아나가 있다는 과야킬 시내 이구아나 공원 탐방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공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 다니는 거리에까지 나와서 설쳐대는 이구아나를 만났다. 사람, 이구아나, 비둘기가 서로 어울려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공간에 공존하고 있는 놀랍고도 신기한 광경이었다. 이구아나의 모습은 옛 공룡시대를 연상케 했다. 길거리, 잔디밭 어디에든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며 주위 나무 등치나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깜짝 놀라기도 했다. 밤이면 이 녀석들은 하나같이 땅바닥이 아닌 나무에서 잠을 자므로 땅바닥이 텅 빈다고 한다. 땅바닥이 싫거나 다른 천적을 피해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 따로 천적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이유가 궁금했다.

다음 날 08:30 호텔을 출발하여 과야킬 공항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국내선을 타고 갈라파고스로 간다. 갈라파고스 입도(入島)를 위한 검색 과정은 매우 까다롭고 철저했다. 갈라파고스의 생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식물의 유입 및 관련 방역 조치 때문이라 한다.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 검색을 마친 후 Lan Ecuador 비행기는 11:20에 San Cristobal 섬을 향해 이륙했다.



〈그림 3〉 과야킬 이구아나 공원



〈그림 4〉 과야킬-갈라파고스 항로

## 2. 산크리스토발섬 착륙

비행기는 약 2시간 후 산 크리스토발 섬의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눈에 띄는 주변의 산이 마치 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화산 분화구의 용암처럼 새까만 바윗돌이 곳곳에 널려 있는 독특한 풍경이었다. 갈라파고스의 첫 도착지인 산크리스토발섬은 갈라파고스의 행정 중심지인 주도(州都) 푸에르토 바케리소 모레노(Puerto Baquerizo Moreno)이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갈라파고스 주(州) 정부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진다. 주(州) 행정구역은 3개의 canton(이사벨라 칸톤, 산크리스토발 칸톤, 산타크루스 칸톤)으로 구성된다. 주도(州都) 모레노(Moreno) 시의 면적은 약 558km<sup>2</sup>(서울시 605km<sup>2</sup>), 인구 약 3천 명(1990)이다. 사탕수수와 커피를 재배하고, 소 사육, 어업, 제당업(製糖業)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다. C. 다윈이 갈라파고스 군도에 처음 도착한 섬이기도 하다. 갈라파고스 교통의 중심지이며, 주 산업은 관광이나 어업이다.

## 3. 산크리스토발섬 항구 풍경

서울보다 작은 산크리스토발섬은 어디에서든 숙소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바로 항구와 해변에 닿는다. 적도(赤道)의 태평양, 눈부시게 맑고 파란 바다 위로 무수한 새들이 날고 있었다. 그중에는 만나기 어려운 군함새도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빨리 난다는 군함새가 커다랗게 선회를 하며 날고 있었다. 땅에는 부룻가 바로 옆에 또 다른 커다란 새들이 한가롭게 앉아 있다. 사람들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아 보인다. 부리가 넓죽하고 긴 펠리컨, 그림책에서만 보았던 펠리컨 실물을 처음 보았다. 그 옆에는 바로 푸른발부비가 있다. 조금 더 나아가 해변 쪽으로 가니 이게 웬일? 바다사자가 사람들이 쉬도록 만들어 놓은 벤치에 올라가 독차지하고, 사람이 가까이 가도 아랑곳하지도 않은 채 꿀잠을 주무시고 계신다. 바다사자가 점령하고 있는 탓에 쉼터에 앉아보지도 못하고 살짝 사진 한 컷 찍고 지나가야만 했다. 이곳은 단연 동물이 사람보다 우선인 것 같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지금부터 300~500만 년 전에 화산 폭발에 의한 탄생한 섬이다. 서쪽 섬은 분화 활동이 활발하고, 동쪽으로 갈수록 화산 활동이 멈춰가는 곳이다. 즉, 동쪽 섬은 화산 폭발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고, 서쪽 섬은 아직도 화산 활동이 진행되는 곳이다. 오래된 섬은 암석의 침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는 이미 바다에 가라앉은 섬도 있다. 가라앉은 섬에 살던 생물들은 새로 탄생한 섬으로 이동하였기에 섬의 탄생보다 더 오래전에 출현한 생물종이 대를 이어 살아오고 있다고 한다. 아직도 화산이 활동하는 지역인 만큼 이곳 섬들은 화산 활동 때문에 탄생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젊고 풋풋한 신천지이다. 그런 만큼 갈라파고스의 생태 환경은 매우 조악하고 황량하다. 이



〈그림 5〉 펠리컨



〈그림 6〉 바다사자

곳 생물은 스스로 혼신을 다해 환경에 적응해서 변신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바로 적자생존의 생생한 현장이다.

#### 4. 방문센터(Interpretation Center), 전망대, C. 다윈 첫 기항지

##### 1) 방문센터 - 섬 발견 역사와 비글호

산크리스토팔에 도착하여 점심 식사 후 곧장 탐방길에 나섰다. 우선 이곳의 일반 현황을 알기 위해 Interpretation Center(방문자 통역과 생태박물관), 전망대 그리고 찰스 다윈의 최초 기항지이며, 그의 동상이 서 있는 Cerro Tijeretas (세로 티헤레타스) 언덕을 탐방하기로 했다. 부둣가를 지나 조금 올라가니 방문센터와 세로 티헤레타스 안내판이 서 있었다. 방문센터와 세로 티헤레타스로 가는 길은 데크가 설치되어 있었다. 데크가 없다면 화산 용암의 돌덩이가 널브러진 거친 너털길 길을 걸어야 하겠지만, 주요 관광 포인트를 연결해 주는 데크가 있어 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방문센터에서는 갈라파고스의 생성, 역사, 주변 환경을 비롯하여 다윈이 승선하여 탐사했던 비글호 항로 등에 관한 안내 설명문이 전시되어 있었다.

갈라파고스를 최초로 발견한 것은 1535년, 파나마의 주교, 프레이 토마스 드 베를랑가(Fray Thomas de Berlanga)이다. 당시는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던 시기였는데, 스페인 국왕 찰스 5세가 남미의 사정을 알아보기 위해 파나마 주교 베를랑가를 급히 파견했는데, 그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발견한 섬이다. 그는 결국 페루행을 포기하고, 귀국을 한 후에 바다사자, 이구아나, 거북이 등 이곳의 식생을 왕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서 땅거북의 등딱지 모양이 안장을 닮아서 옛 스

페인어로 ‘안장’을 뜻하는 ‘갈라파고’를 붙여 ‘갈라파고스거북’이라 칭한 것이 갈라파고스의 유래이다. 이후 무인도 갈라파고스는 1832년 에콰도르의 호세 비야밀 장군이 개척을 시작, 비로소 에콰도르 땅이 되었다. 에콰도르 서쪽 해안으로 약 1,000km 가량 떨어진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갈라파고스 주(洲)는 1973년에 신설되었으며, 주도(州都)는 산크리스토팔섬의 푸에르토 바케리소 모레노(Puerto Baquerizo Moreno)이고, 3개 지방자치단체(canton)를 관할한다.

비글호는 영국의 왕립해군 군함이었는데, 탐사용 함선으로 개조되어 세 번의 탐험을 했던 선박 이름이다. 첫 번째 탐험은 1826~1830년 파타고니아, 티에라델프예고, 리우데자네이루를 탐험했다. C. 다윈이 탑승했던 비글호의 두 번째 항해는 1831.12.27~1836.10.2까지 5년 동안이었다고 한다. 다윈은 항해 후반 1835.9.15.~10.20까지 갈라파고스에서 약 1개월 이상 머물렀다고 한다. 비글호 항해로는 영국 플리머스 항에서 출항 → 브라질 사우바도르 항 → 리우데자네이루 →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 포클랜드섬 → 남아메리카 남단을 돌아서 → 칠레 발파라이소 → 에콰도르 갈라파고스섬 → 태평양 횡단이었다고 한다.

## 2) 산크리스토팔 전망대와 C. 다윈 첫 기항지

방문센터를 지나 전망대로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야생목화, 선인장나무 등 이곳의 특이 식물을 만났다. 검은 회색빛의 조그마한 용암(lava) 도마뱀이 여기저기서 기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었다. 목화는 인도 및 중남미가 자생지이다. 기원전 3,500~2,500년 전부터 재배된 목화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것은 14세기 이후라고 한다. 야생 목화는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지만, 일찍부터 섬유로 만들어 이용한 것은 인도라고 한다.<sup>3)</sup> 선인장나무의 영명(英名)은 줄기에 가시가 많고 열매가 마치 배(pear)를 닮은 커다란 나무라는 뜻의 ‘Giant prickly pear cactus tree’라고 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 나무처럼 자라는 선인장인데, 갈라파고스 특산종이기에 ‘갈라파고스 선인장나무’라고도 한다. 수령이 150년 이상이다.<sup>4)</sup> 갈라파고스에의 특수 환경이 이들을 나무로 만들었다. 초식 동물인 코끼리거북이와 육지 이구아나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갈라파고스 특유의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 때문에 먹을거리가 없어 선인장까지 먹어 치우게 되었다. 이러한 특수 환경에서 갈라파고스

3) 우리나라에 목화가 도입된 것은 고려 말 1363년(공민왕 12) 때이다.

4) 선인장은 원래 나무였는데,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생장하면서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물을 저장하는 줄기와 광합성 기관인 엽록체가 합성된 조직으로 진화한 식물이다. 햇빛이 강한 낮에 증발량을 최소화하려고 잎은 가시로 변해 수분 소비를 최대한 줄이게 되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막에 자라고 있는 선인장의 특성이다.



〈그림 7〉 선인장나무



〈그림 8〉 군함새

선인장은 생존을 위해 어릴 때는 가시투성이의 줄기를, 점차 커 가면서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하게 변하며, 높이 자라 자이언트 선인장이 되었다고 한다. 특수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 위한 동물과 식물의 무한변신이 신비하고 감탄스러웠다. 갈라파고스의 바다이구아나와 선인장나무가 이를 증명해 주고 있었다.

전망대에 오르니 갈라파고스 주도(州都)이며 산크리스토팔 남쪽에 있는 모레노(Moreno)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 바로 아래 절벽에서 참으로 귀한, 만나기 힘든 군함새(軍艦鳥)<sup>5)</sup>를 보았다. 좀처럼 내려앉지 않는 군함새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 이를 일반 카메라로 촬영할 수 있었다. 이곳이 바로 군함새 서식지인 덕분이다. 군함새는 열대 섬 및 해안 지방에서 번식하는 새이다. 집단으로 번식하며, 바위, 높은 절벽 또는 무인도의 나무 위에 둥지를 튼다. 시속 400km 이상의 속도로 날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로 알려져 있다. 산 크리스토팔 섬은 아메리카군함새, 갈라파고스바다사자, 갈라파고스거북, 푸른발부비, 붉은발부비, 바다이구아나, 돌고래, 제비꼬리갈매기 등의 서식지라고 한다.

전망대에 올라보니 남쪽으로는 주도(州都)인 모레노 시가 보이고, 서쪽으로는 멀리 바다 한가운데에 ‘잠자는 사자 바위’가 보였다. 북쪽으로는 절벽 아래에 푸른 바다와 만(灣)이 내려다보였다. C.

5) 군함새는 목에 주머니가 있는데, 평소는 길은 노란색이지만, 번식기에는 붉은색을 띠고 풍선처럼 부푼다. 수컷이 암컷보다 작고 색이 짙다. 군함새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열대 섬 및 해안 지방에서 번식한다. 대한민국에서는 2004년 제주, 2007년 춘천에서만 관찰되었으며, 2011년 6월 제5호 태풍 메아리의 영향으로 한반도에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군함새가 관찰되었다. 암탉 크기의 몸이지만, 날개를 편 길이가 무려 2.5m나 되는 거대한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깊게 갈라진 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몸의 윗면은 금속광택이 나는 검은색의 깃털로 덮여 있으나, 어린 새는 머리가 흰색이다.

다윈이 1835.9.16 비글호를 타고 첫 기항했다는 작은 만(灣)으로 Darwin bay라고도 한다. 이 만은 수영과 스노클링을 위한 이상적인 장소로도 유명한 곳이라 한다. 그리고 만의 위쪽 능선, Cerro Tijeretas 언덕에 찰스 다윈 상(像)도 보였다. 그가 이곳에 첫 기항한 것을 기념하여 동상을 세웠다고 한다. 멀리 끝없이 펼쳐진 남태평양을 바라보는 청년 C. 다윈의 동상과 그 옆에는 바다사자 상이 함께 있었다.

### 5. Punta Carola 해변 - 바다사자와 해수욕객

다윈의 동상이 서 있는 언덕을 내려와 Punta Carola 해변으로 내려왔다. 세로 티헤레타스에 있는 C. 다윈 동상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돌아 나오니 황금빛 모래 해변이 나온다. 사랑의 해변이라고도 하는 이곳 폰타 카롤라 해변은 바다사자 천국이었다. 해수욕객과 바다사자가 함께 어울리는 잃어버린 천국과 같은 세상의 풍경이었다. 이곳은 또한 수평선에 넘어가는 저녁놀이 일품이라 한다. 파란 바다, 그리고 석양 햇살에 황금빛으로 빛나는 부드러운 모래가 펼쳐져 있고, 곳곳에는 바다사자가 즐비하니 늘어져 따스한 햇볕을 즐기고 있었다. 여기는 바다사자 세상이었다. 사람이 지나가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영역을 지킨다. 사람이 오히려 비켜 가야만 한다. 바다사자 가까이 접근해서 사진을 촬영해도 꿈쩍하지도 않았다. 산크리스토폴섬 폰타 카롤라 해변에 해가 저물어간다. 낮 동안 신천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찬란한 해가 저문다. 멀리 수평선 위를 날고 있는 군함새의 활짝 편 날개 위로 저녁놀의 물들고 붉은 태양은 태평양에 몸을 감춘다. 아름다운 석양빛에 취하여 한동안 멍하니 지는 해를 바라보는 사이 주위에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림 9〉 Cerro Tijeretas 언덕의 C. Darwin 동상



〈그림 10〉 Punta Carola 해변의 바다사자



## 6. 잠자는 사자섬(Leon Dormido)에서의 스노클링

갈라파고스에 입도한지 둘째 날이 밝았다. 도착 첫날, 이 지역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자 방문자센터에 들르고 모레노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와 C. 다윈 상이 있는 언덕 등을 살펴보았다. 둘째 날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사이트로 유명한 Leon Dormido(잠자는 사자) 또는 Kicker rock이라고도 하는 섬에 갔다. 보트를 타기 위해 찾아간 항구 선착장 계단에는 역시나 바다사자 님이 자기 세상인 양 꿀잠을 주무시고 있었다. 참으로 한가롭고 여유로운 항구의 풍경이다.

수심이 깊고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Leon Dormido에 가기 전에 안전상 수심 낮은 맹그로브 숲이 있는 해변에서 스노클링 워밍업 시간을 가졌다. 워밍업이라기보다는 맹그로브 숲 아래 물고기와 어패류 등 다양한 생물들을 재미있게 관찰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심 낮은 해변에서 적당한 물놀이를 하고 나서 드디어 정식 스노클링 사이트로 갔다. 뱃길의 바닷물이 푸르다 못해 검은빛으로 빛나는 쪽빛 바다였다. Leon Dormido 섬에 당도해보니 수직 절벽인 바위섬이었다. 배를 댈 곳도 없다. 스노클링 장비를 갖추고 바로 바다로 잠수했다. 수면 바닥이 보이지도 않은, 수심이 워낙 깊은 곳이라서 겁도 났다. 주로 바위벽 주변을 맴돌며 벽에 붙은 조개류와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물고기의 색깔이 참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웠다. 배를 댈 곳이 없는 망망대해에 솟은 바위섬이라서 휴식도 식사도 배에서 해결해야만 했다. 선상이 베이스캠프인 셈이다. 스노클링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 '잠자는 사자 바위'가 멀리 추억 속에 빠져들 듯 점차 멀어져 갔다. 갈라파고스의 첫 체험지, 산크리스토팔섬의 일몰이 환상적이었다. 대낮 하루 동안 찬란했던 해가 저물고 내일은 더 붉은 해가 다시 솟아올 것이다. 내일은 아침 일찍 Air taxi라고 부르는 4~6인승 경비행기를 타고 이사벨라섬으로 이동한다. 요금은 편도 100\$이다.

## Ⅲ. 이사벨라섬

### 1. AirTaxi를 타고 이사벨라섬으로 이동

산크리스토팔섬에서 이틀을 보내고 갈라파고스의 또 다른 섬, 이사벨라섬으로 떠난다. 경비행기 Air Taxi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갔다. 경비행장은 산크리스토팔 공항과 함께 붙어 있었다. 경비행장은 육지로 가는 비행장과 별도의 휴대품 검색대가 있었다. 경비행기 Air Taxi는 크다고 해야 고작 10인승 미만이다. 헬리콥터가 아닌 비행기라서 Air Taxi라 부르나 보다. Air Taxi는 조종사 포함 6인승인데 5명이 탑승했다. 이사벨라섬은 산크리스토팔 공항에서 서쪽으로 약 150km 떨어져 있다.

육지에서 Bus로 단체여행을 갈 때 1호, 2호, 3호... Bus가 연이어 출발하듯이 Air Taxi도 1호 Air Taxi가 출발하고, 바로 다음 Air Taxi가 그 뒤를 따랐다. 앞 팀 Air Tax가 이륙하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 다음 비행기도 그 뒤를 쫓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지면을 박차고 이륙한다. 앞서 출발한 경비행기를 따라가는 비행이다. 산크리스토발섬을 07:40분에 이륙한 Air Taxi는 약 1시간 후인 08:30분에 이사벨라섬에 도착했다. 비행고도는 약 2,000m, 보통 10,000~30,000m 고도로 나는 일반 비행기보다 고도가 낮아 바다가 환히 내려다보였다. 산크리스토발섬에서 이사벨라까지 배편으로 이동하자면 하루 일정을 허비하게 되어 Air Taxi를 이용한 것이다.

이사벨라섬은 갈라파고스 군도에서 가장 큰 섬으로 면적은 4,588Km<sup>2</sup>, 우리나라 제주도(1,850km<sup>2</sup>)의 2.5배 크기이다. 면적은 크지만, 인구는 약 2,200명에 불과해 한적하고 조용한 섬이다. 섬의 대부분 주민은 이사벨라섬 남동쪽에 있는 푸에르토 비야밀(Puerto Villamil)에 거주한다. 갈라파고스 주(州)의 이사벨라 칸톤(canton)이다. 지구의 적도선 아래에 있는 이사벨라섬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북위와 남위에 모두 속해 있다. 이름의 유래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탐험을 후원했던 스페인 여왕 이사벨 1세의 이름에서 딴것이라 한다. 이사벨라섬에는 조그만 Air Taxi 용 비행장만이 있고 일반 비행장은 없다. 이사벨라섬에 착륙하여 타고 왔던 Air Taxi를 뒤돌아보니 참으로 작은 비행기였다. 이사벨라섬에 착륙하여 10\$의 입도비(入島費)를 냈다. 갈라파고스섬 중 가장 늦게 형성된 이사벨라섬은 약 1백만 년 전에 폭발한 6개의 순상화산으로 형성된 섬이라 한다.<sup>6)</sup> 가장 높은 화산은 북부의 울프 산, 해발 1,707m이다. 이들 6개의 화산 중 에콰도르 화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활



〈그림 11〉 Air Taxi



〈그림 12〉 이사벨라섬의 6개 화산 (지도 위 붉은 점)

6) 이사벨라섬의 여섯 개의 순상화산은 Ecuador(에콰도르), Wolf(울프), Darwin(다윈), Alcedo(알세도), Sierra Negra(시에라 네그라), Cerro Azul(세로 아줄)이다.

화산이며, 지구상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라고 한다.

## 2. 이사벨라 ‘거북이 사육센터’ 방문

갈라파고스 제도에는 총 2개의 거북이 사육장이 있는데, 그중 하나인 이사벨라섬의 ‘거북이 사육센터’를 방문했다. 이 센터는 1999년 설립되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다음 목적지인 산타크루스섬 ‘찰스다윈연구소’에 있다고 한다. 사육센터에는 전 세계에 마지막으로 남았었던, George라 불렀던, 갈라파고스 핀다섬 자이언트 거북의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다.<sup>7)</sup>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갈라파고스에는 거북이 아주 많았으나, 선원들과 어민들이 식용으로 마구 잡은 데다 사람이 풀어놓은 염소까지 이들의 먹이를 가로채 멸종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그 후 적극적인 보존 운동 덕분에 현재 갈라파고스에는 조지와 다른 아종이긴 하지만 코끼리거북 약 2만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영국 해적들이 이 섬을 근거지로 삼으면서 10만 마리 이상의 갈라파고스 거북이를 식용이나 등껍질 수집용으로 남획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조지처럼 멸종된 종도 생겼다고 한다.

사육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육 거북이 등에는 파란색 혹은 하얀색의 관리번호가 씌어 있는 거북이들이 사과처럼 생긴 조그만 푸른 열매를 즐겨 먹고 있었다. 그 열매는 ‘해변 사과’라고도 불리는 Manchineel이다. 만치닐 나무는 열대 아메리카산 대극과(科)의 나무로서 하얀 수액과 열매에 매우 강한 독이 있다고 한다. 독성을 가지고 있어 “죽음의 사과”라고도 하는데, 단지 자이언트 거북이만이 이 독(毒)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즐겨 먹는다고 한다.

## 3. ‘거북이 사육센터’ 안의 탐방로 산책

사육 센터 안의 거북이들을 관람하고 난 후 해변으로 나가는 탐방로(Trail)를 따라 걸었다. 탐방로 길이는 1.2km, 개방 시간은 06:00~18:00, 탐방로에는 선인장나무가 줄줄이 서 있었다. 탐방로의 테크에 올라서자마자 바다이구아나를 만났다. 과야킬에서 만난 육지 이구아나와 사뭇 달랐다. 햇볕에 따뜻해진 테크에서 몸 온도를 높이는 중인가 싶었다. 해변의 바다사자처럼 이 녀석도 마치 자기

7) 1971년에 발견된 조지(핀다섬 거북이)에게는 같은 종(種)의 암컷이 있었다는데 짝짓기에 실패하고, 암컷이 죽고 난 후 홀로 수십 년을 살았다. 그 조지가 2012년 6월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고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측이 발표함으로써 조지는 자손도 남기지 못하고 그가 속한 아종(亞種)은 공식 멸종한 것이다. 갈라파고스 공원 측은 조지의 사인을 밝혀내고 그를 박제해 영구 보존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생전의 모습으로 복원한 박제가 2017.3.26부터 일반에게 전시한다는 뉴스를 귀국 후에 접한 바 있다.



〈그림 13〉 바다이구아나



〈그림 14〉 홍학

영역이란 듯이 버젓하게 길을 가로막고 비켜 주지도 않았다. 조금 더 나아가니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또 한 녀석이 있었다. 다른 놈과 싸운 것인지, 아니면 공격을 당한 것인지? 이곳에는 천적도 없는데 아마도 서로 싸운 모양이었다. 평화로운 동물의 천국이라 하는 갈라파고스에 사는 바다이구아나도 삶의 현실은 고달프고 각박한 것인가 보다. 에콰도르에서 만난 육지 이구아나와 다르게 이들은 용암을 닮은 검은색이고, 크기도 오히려 작았다. 천적이 없는데도 주변 환경과 같은 보호 색깔의 위장 전략이 필요한 것인가? 까닭이 궁금했다. 데크를 따라가니 불그레한 황톳빛 물이 고인 연못에 플라밍고가 떼 지어 있었다. 동물원이 아닌 자연 상태에서 여유롭고 한가하게 쉬고 있는 야생 플라밍고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데 주변은 온통 검은색 용암인데, 연못물이 왜 황톳빛일까? 알 수가 없었다.

탐방로를 지나 해변으로 나오니 사방 천지에 바다이구아나가 널브러져 있었다. 보기에는 매우 험상궂고 무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온순한 동물이었다. 육식 동물도 아닌 순수한 초식 동물이라서 사나운 야성이 없는 토끼처럼 온순하다고 했다. 갈라파고스에 사는 바다이구아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해양성 도마뱀이다. 애초에는 선인장을 먹고 살았지만 살아남기 위해 이구아나는 바다로 나갔고, 바다와 바위를 오가며 해조류를 뜯어 먹고 살도록 진화해야만 했다고 한다. 척박한 땅, 화산섬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선인장만 먹고 살기에는 선인장이 너무도 부족한 데다 어린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큰 선인장은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해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곳 특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의 특별한 진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이다. 바다이구아나, 사람을 무서워하거나 피하지도 않았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다가 무서운 짐승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는 아주 가까이 접근하곤 했다. 특히 여성들이 처음엔 놀랐다가 나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했다.

#### 4. 화산암 너덜지대 틴토레라스(Tintoreras)섬

오전에 ‘거북이 사육센터’ 탐방을 마치고, 오후에는 이사벨라섬의 제일 큰 도시 푸에르토 비야밀(Puerto Villamil) 남쪽 끝에 있는 항구와 가까운 무인도, 틴토레라스 용암 너덜지대를 탐방했다. 바다이구아나와 바다사자가 득실거린 곳이다. 보트를 타고 푸른 바다를 달린다. 바다를 오염시킬 공장도, 대도시도 없는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 저 멀리 남태평양 끝 남극에서부터 숨 가쁘게 달려온 파도도 잠시 숨을 돌리고 쉬어간다는 틴토레라스를 향해 간다. 머나먼 길을 달려와 파랗게 멍이 든 파도가 푸른 멍을 털고 가는 듯, 아니면 파란 하늘이 넓디넓은 남태평양에 풍당 빠진 듯, 갈라파고스의 바닷물은 파랗고 파란 쪽빛 바다였다. 침병 물속에 들어가면 나의 온몸도 파랗게 물이 들 것만 같았다. 쪽빛 바다, 푸른 세상에 등실 떠 있는 작은 섬들이 흑진주처럼 맑고 깨끗해 보였다. 멀리 바다에 떠 있는 푸른 섬들은 미지의 꿈의 섬, 신천지 희망의 섬처럼 보였다.

푸른 바다를 시원스레 나아가는 뱃머리에는 이곳의 진귀한 새와 동물들이 선을 보였다. 배를 타고 섬 앞바다로 나가니 여기서 저기 작은 무인도들이 널려 있는 용암 너덜지대가 나타났다. 곳곳에 있는 작은 섬에는 이곳의 진귀한 동식물이 우리의 시야를 즐겁게 했다. 갈라파고스 꼬마 펭귄, 푸른발부비(Blue footed booby), 군함새가 보이고, 해안에는 맹그로브 숲이 펼쳐져 있었다. 펭귄하면 큼직한 남극의 황제펭귄이 떠오르는데, 이곳에서 만난 펭귄은 앙증맞고 귀여운 꼬마 펭귄이었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펭귄 종류 중 세 번째로 작은 종이라 한다. 갈라파고스 펭귄은 훔볼트 해류에서 비롯되는 서늘한 기후와 크롬웰 해류로부터 생성되는 매우 깊은 바닷속 차가운 바닷물 덕에 찬물로 몸을 식히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sup>8)</sup>

군함새가 바다 위를 선회하고 있었다. 군함새는 몇 주 동안이나 공중에 떠 있을 수 있으며, 하루에 수백 마일을 날고, 날면서 먹고 잔다고 한다. 사이언스 저널의 한 연구 결과는 군함새가 최고 56일까지 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한다. 비행 중 뇌 반쪽이 수평을 유지하고 반쪽은 잠을 잔다고 한다. 용암 너덜지대 앞 낮은 수면에 맹그로브숲이 뾰뾰하게 자라고 있었다. 바닷물 염분에 잘 적응하는 맹그로브는 물고기들에 각종 먹이를 제공하고, 쓰나미를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용암 활동으로

8) 전 세계에 알려진 펭귄의 종류는 18종인데, 가장 큰 황제펭귄은 몸길이가 120cm나 된다고 한다. 펭귄은 모두 남반구에 분포하는데, 남극, 남아메리카, 남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그리고 적도 부근의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다고 한다. 갈라파고스펭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고유종 펭귄인데, 야생에서 적도 북쪽에 사는 유일한 펭귄으로, 이곳 펭귄과 가장 가까운 친척은 아프리카 펭귄인 마젤란 펭귄과 훔볼트 펭귄이라 한다. 무게 2.5kg, 크기 50cm인 갈라파고스 펭귄은 펭귄 중 가장 고위도에 서식하며, 유일하게 열대지역에서 서식하는 펭귄으로서 해류를 타고 온 훔볼트 펭귄이 조상이라 한다. 아프리카 펭귄, 마젤란 펭귄, 훔볼트 펭귄과 마찬가지로 줄무늬 펭귄 속(屬)에 속한다. 주로 페르난디나섬과 이사벨라섬 서쪽 해안에서 발견되지만, 소수의 개체가 갈라파고스 제도의 다른 섬에도 서식하고 있다고 한다.



〈그림 15〉 바다이구아나



〈그림 16〉 바다사자



〈그림 17〉 갈라파고스펭귄



〈그림 18〉 푸른발부비

갈라파고스에 섬이 생겨난 뒤 선인장에 이어 등장한 것이 맹그로브라고 한다. 맹그로브 숲은 물고기의 산란 장소, 은신처, 먹이 제공과 태풍이 왔을 때 방풍림 역할까지 하는 매우 유용한 숲이며, 맹그로브 나무의 뿌리는 물밑 10m 정도까지 내려가 있다고 한다.

틴토레라스는 매우 특이한 용암 너털지대였다. 섬이 온통 검은색 돌덩이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섬에는 검은색의 바다이구아나가 바닥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 돌인지 바다이구아나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였다. 이 섬은 바다이구아나들의 세상이었다. 느리고 게으른 이 녀석들은 지나가는 우리를 거의 개의치 않아 발에 밟힐 것만 같아 오히려 조심스러웠다. 이 녀석들은 바닷물을 싫어하는지 가까이 다가가면 해안 쪽으로 물러가지만, 물속으로 뛰어들지는 않았다. 모습은 매우 험상궂고 용맹스럽게 생겼다. 해변에는 덩치 큰 바다사자가 뒹굴고 있었다. 보기에는 바다이구아나보다 온순해 보이는데, 이 녀석은 사람에게 밀면서 달려들기도 한다. 바다사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울음소리가 사자와 비슷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외관은 윤기가 자르르 흘러 매우 깔끔하고 점잖은 신사처럼 보이지만,

막상 가까이 가면 고약한 냄새가 풍기었다. 새파란 발이 인상적인 푸른발부비도 해안가 바위에 모여 앉아 있었다. 푸른발부비는 밝게 빛나는 파란색 물갈퀴 발이 특징인 바다새이다.<sup>9)</sup> 멕시코에서 페루에 이르는 남아메리카 태평양 연안에 분포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갈라파고스섬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바위에 도도히 앉아 있는 푸른발부비, 마치 사진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 듯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다. 부비의 발은 혈액순환이 원활하여 다른 부위보다 더 따뜻하다고 한다. 어미는 발을 이용하여 알을 품는데,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은 암컷의 발 위에서 한 달을 보낸다고 한다. 푸른색 페인트 통에 빠진 듯 발만 파란 녀석, 이들은 어떤 진화 과정으로 발만 파란 하늘색이 되었을까? 바위에서 쉬고 있는 푸른발부비 세 마리의 빛나는 푸른 발이 눈길을 끌었다. 건강 과시도, 애정 표현도, 새끼 기르기도.....쪽빛 세상의 갈라파고스에서 푸른발부비는 밝게 빛나는 푸른 발로써 건강 상태를 알리며, 사랑의 구애를 한다고 한다. 푸른 발은 어린 새끼를 키우는 주요한 요람이기도 하다.

이사벨라섬의 1백만 년 지질학적 연대가 짧은 땅이라니 인생 백 년의 세월은 참으로 찰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꿈결처럼 신기한 모습의 바다와 세상을 구경했다. 틴토레라스섬에 오가는 동안의 쪽빛 물결, 그 푸른 바다가 지금도 머리에 선하다. 참으로 곱고 아름다운 남태평양의 광활한 쪽빛 세상이었다.

## 5. 화산암 너덜경(Lava Tunnel), Los Tunnel Snorkeling

### 1) 화산암 너덜경(Lava Tunnel)

이사벨라섬의 둘째 날, 전날 갔던 항구에서 스피드 보트를 타고 더욱더 먼 화산암 터널(lava tunnel) 지대로 가서 탐방 겸 스노클링을 했다. 부두에서 나룻배 같은 조그만 쪽배를 타고 부두 앞에 떠 있는 스피드 보트를 타려고 이동한 데도 1인당 미화 0.5~1\$를 내야 했다. 에콰도르는 미국 달러를 국가 화폐로 쓰고 있다. 푸에르토 비야밀 부두에서 약 1시간 정도 서쪽으로 이동하면 용암이 흘러 내려 바닷가 곳곳에 화산암 터널이 형성된, 스노클링으로 유명한 화산암 터널 지대가 있다. 가는 도중 시원하게 탁 트인 광활한 태평양을 바라본다. 스피드 보트 뒤에서 나오는 하얀 물보라 너머로 새

9) 사회적인 동물로 최대 200마리 정도가 무리를 이루어 물고기가 많은 해안 근처에서 협동 사냥을 한다고 한다. 푸른발부비에게 발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가진 부위이다. 발의 푸른색은 신선한 생선을 먹은 카로티노이드 색소에서 비롯되며, 카로티노이드 색소 침착은 영양 및 면역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이기 때문에 성적(性的) 선택의 지표가 된다고 한다. 푸른발부비는 연중 번식을 하는 데 번식기가 되면 수컷은 자신의 영역 내에서 암컷을 감동하게 하기 위해 그의 푸른 발을 과장되게 높이 들면서 과시하고, 걸어 다니다가 암컷 앞에서 발을 위아래로 들어 올려 춤을 추며 구애 행동을 한다고 한다.

파란 바다가 장엄하게 펼쳐져 있다. 스치는 해변의 색다른 풍경에서 떠나면 적도 땅의 이국 풍치가 물씬 풍긴다. 주변 풍경들이 한 폭의 그림이다. 크루즈 선과 돛을 단 범선들이 광활한 바다 위에 한 폭의 그림처럼 떠 있고,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곱기만 하다. 스피드 모터 뒤로 뿜어 나오는 하얀 물보라가 소중한 추억의 알갱이처럼 하늘로 튀어 오르고 보트를 따라 오는 듯한 하얀 물거품이 주어진 생의 삶을 재촉하는 세월처럼 맹렬하게 달리는 보트를 따라붙었다. 망망대해에 외로이 떠 있는 섬, 흑진주처럼 아름답게 빛나지만, 화산 폭발로 백만 년이 채 안 된 이곳의 섬은 젊고 싱싱한 새로운 땅이다.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풍화된 기름진 땅이 아니라, 아직도 시커먼 화산암 덩어리, 화산암 너털경일 뿐이다.

지나는 보트 옆에 바다거북이 고개를 내밀고 불쑥 나타난다. 바다사자도 해변 위를 미끄러지듯 헤엄쳐 나간다. 모두가 처음 보는 신기한 광경이라서 보트에 탄 일행의 환성이 요란스럽다. 바닷가 화산암 너털경 (lava rocky)에 잇대어 맹그로브 숲이 우거진 해변이 보인다. 맹그로브는 열대와 아열대의 바닷물이 닿는 곳과 담수에 잠기는 곳, 또는 그 중간에서 자라는 종류 등 목본식물의 집단으로 줄기와 뿌리에서 많은 호흡근을 내려 자라는 열대 나무이다. 그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매우 다양하다. 어떤 종은 줄기에서 싹이 터 적절한 크기로 자라게 되면 원가지에서 떨어진다고 한다. 새 가지가 바로 땅 위에 떨어졌을 경우 그 자리에서 자랄 수 있으나, 물 위에 떨어질 경우에는 물 위에 뜰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광합성을 할 수 있어 물 위를 떠다니다가 적절한 환경을 만나면 바로 뿌리를 내리고 생장을 시작하기도 한다. 맹그로브가 자라면 뿌리가 내린 물속에 물고기가 모여들고, 나무 위로는 바닷새의 휴식처와 보금자리가 되어 점차 생명체가 균락을 이루는 새로운 생태계가 이루어진다. 흙과 모래가 없는 새로운 화산 땅, 널브러진 화산암 너털경에 생명의 터가 생겨난다. 그 위에는 선인장나무 그리고 땅과 바다가 이어지는 해변에는 맹그로브 숲이 하나둘 탄생하면서 생명체가 모여들기 시작하는 원시의 땅 모습이다. 하늘에 하얀 뭉게구름 흐르고, 그 아래 거친 화산암 대지에 새 생명체들이 자라기 시작한다. 모래와 흙이 없이 화산암 바위가 깔린 맑은 바닷물 위에 하늘의 흰 구름이 내려앉아 함께 흐르고 있는 태평양의 절경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진다.

드디어 화산암 너털지대에 도착했다. 거칠고 흙 없는 화산암 벌판에 수많은 화산암 바위 조각이 싹조각처럼 널브러진 앙상한 벌판이다. 매서운 가시를 달고 있는 선인장나무만이 가득하다. 하지만 푸른 하늘과 하얀 구름, 새파란 바다가 한없이 한적해 보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 활동이 전개되는 원시의 땅이다. 황량하고 딱딱한 화산암 너털경 위에 선인장이 자라고 물새가 찾아들고 다양한 생명체가 태동하고 있다. 이곳의 지형은 정말 독특했다. 톱니 모양의 날카롭고 뾰족한 화산암 바위 위에



하얀 이끼가 끼고 물속에는 파란 해초가 엉겨 붙어 자란다. 바닷속 바위에 붙은 물이끼를 먹고 사는 고기가 모여들고, 해초를 뜯어 먹고 사는 바다이구아나가 있다. 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물새가 찾아든다. 신천지에 생명이 움트는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어가는 모습을 본다. 수억 년의 세월에 걸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지구 생태계의 형성 과정을 되풀이하는 듯해 보인다.

## 2) Los Tunnel Snorkeling

거칠고 황량한 화산암 너덜경 벌판에 서 있는 선인장나무 그리고 맹그로브 숲이 갈라파고스 화산 섬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풀도 꽃도 없는 황량한 화산암 벌판, 용암이 흐르다 식어서 굳은 바위 사이로 바닷물이 들고 나고 하면서 터널이 수없이 많이 생겨난 터널 바위 지역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스노클링을 Los Tunnel Snorkeling이라 하나 보다. 이곳은 이사벨라섬의 유명 스노클링 사이트라고 한다. 물이 얇고, 깨끗하며 사람이 붐비지 않아 조용하며, 한적한 곳이다.

바닷물 위를 흐르다가 식은 일련의 화산암은 독특한 지질 구조, 즉 많은 호(湖)와 터널 그리고 수중 터널을 만들었다. 이곳 Los Tunnel Snorkeling 사이트는 입구가 얇고 파도가 때론 강해서 배의 접근이 쉽지 않은 곳이라 한다. 다양한 식물과 생물이 어우러져 수많은 생명체가 더불어 자라는 복잡한 생태계가 아직 형성되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되어가고 있는 원시의 땅, 젊은 신천지이다. 바닷물 들고나는, 흙 한 줌도 없는 화산암 바위 틈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선인장나무, 그리고 원시의 벌판이다.

우리 일행보다 먼저 도착한 다른 팀이 화산암 너덜경(lava field)을 둘러보고 있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천지에 온갖 문명의 혜택 속에서 자연을 멀리 하고 잊어버린 현대인이 서 있기에 너무나 생소한 곳이다. 가장 자연스럽고 원시적인 태초의 환경 속에서 꿈꾸는 외계의 세계에 온 듯 이방인이 되어 화산에 의해 탄생한 신천지를 이곳저곳 둘러보았다. 태초의 땅, 원시의 땅에서 문명에 때 묻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원초적 자연의 풍광과 흰 구름 흐르는 하늘과 화산암 너덜경 그리고 호수처럼 맑고 깨끗한 바위 벌판 가운데 연못처럼 드러난 작은 바다 호수가 있다. 스노클링 복장을 갖추고 선글라스에 모자를 쓰고 큼직한 카메라를 메고 있는 문명인 차림으로 원시의 땅에서 있는 모습이 오히려 멋쩍다. 수억 년의 세월을 타임머신으로 되돌아온 듯 태초의 땅에 시간을 거슬러 온 이방인의 모습이다.

화산암 너덜경 지대에 드러난 연못 같은 바다 호수, 그곳에는 바다 너덜경 틈새의 터널을 따라서 온 바다거북, 바다사자, 상어, 가오리 등이 헤엄쳐 돌아다닌다. 바다 연못가 바위 위에는 푸른발부비

가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가까이 카메라를 들이대도 날아가지도 않고 자세를 취하며 쉬고 있었다. 화산암 너털경을 이곳저곳 둘러보고 원시의 땅을 거닐어 보았다.

### 3) 바다거북과 함께 스노클링

화산암 너털경(lava tunnel) 탐방을 마치고 바닷물 사이사이로 화산암 터널이 잘 형성된 곳에서 스노클링을 했다. 바닷속 한 마리 물고기처럼 함께 움직이며 세상사를 잊는 한때였다. 스노클링 지역의 바다거북이 마치 물속의 동료인 양 물속을 헤집고 다녀도 도망치지도 않고 유유히 동행했다. GoPro 같은 액션캠이 없어 수중 촬영은 못 했지만, 사실 꼭 수중 촬영을 할 필요도 없었다. 수심이 5m 이내로 얕아 물 밖에서도 훤히 들여다보이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둔탁하고 덩치 큰 육지의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과 다르게 바다거북은 확실히 등딱지가 날렵하고 매끈하고 납작하며 다리는 수영하기 좋게 지느러미 모양으로 평평했다. 주로 해조류를 뜯어 먹으며, 가끔 동물성 먹이도 먹는다고 하는 데, 알을 모래 해변에 낳고 알에서 깬 새끼거북은 바다를 향해 이동하는 중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한다.

천상천하에 하나인 듯 선인장나무가 두 팔 벌려 하늘을 우러르고 있다. 시커먼 화산암이 흘러내려 굳어진 해변의 화산암 벌판에는 거칠고 간결한 모습으로 선인장나무가 마치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 듯 서 있다. 이토록 막막하고 황량한 태초의 자연 속에 나 또한 문명의 탈을 벗고 알량하고 계산 밝은 영악함을 잊고, 형식과 번례(煩禮)에 찌든 번뇌하는 현대인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 시원(始原)의 동물이 되어 원시의 자연 속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림 19〉 화산암 너털경(lava tunnel)



〈그림 20〉 바다거북

## 6. 시에라네그라 화산 탐방

갈라파고스 4일째이자 이사벨라섬 둘째 날, 오전에는 Los Tunnel Snorkeling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호텔로 들어와 잠시 쉬었다가 오후의 일정인 Sierra Negra(시에라 네그라) 화산 분지를 탐방했다. 이사벨라 섬에는 6개의 화산이 있다. 이 중의 하나인 시에라 네그라, 가장 최근인 2005.10월에 화산 분출이 일어난 세계에서 가장 활동적인 화산 중 하나이다. 화산분화구 직경이 약 10km,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Caldera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칼데라는 약 250만 년 전에 폭발한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는 ‘응고롱고로(Ngorongoro)’ 화산분화구인데, 남북으로 16km, 동서로 19km, 깊이 600m이다. 찰스 다윈이 갈라파고스에 왔을 때도 시에라 네그라 분화구에서 증기가 배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한다.

적도(赤道) 아래 뜨거운 태양을 등에 지고 해발 1,124m 산을 오르고자 헉헉 대며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땀방울이 비 오듯 흘러내린다. 해발 1,124m이지만 섬에서의 해발 1,000m는 대단한 높이이다. 해발 984m인 울릉도 성인봉을 생각하면 비교가 될 성싶다. 이제껏 보지 못한 갈라파고스의 식물들을 보면서 산을 오르다 보니 드디어 이사벨라섬의 Sierra Negra 화산 분화구가 눈앞에 펼쳐졌다. 직경 약 10km의 광활한 분화구가 나타난 것이다. Sierra Negra 화산은 갈라파고스에서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이며, 2005.10.22~10.30까지 마지막 분출이 있었던 곳이다. 세계에서 제일 큰 ‘응고롱고로’ 화산 분화구와 Sierra Negra, 백두산의 화산분화구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눈 앞에 펼쳐진 Sierra Negra Caldera의 거대한 분화구는 바닥이 온통 까만색이었다. 시커먼 화산암과 용암의 재로 뒤덮였나 보다. 그 바닥 곳곳에 빗물이 고여 흐른 듯 물줄기 자국이 보이고, 살짝 올라온 평지 일부에는 어디서 날아온 풀씨가 싹이 튼 것인지 군데군데 녹색식물이 자라고 있어 끊임없이 계속되는 자연 세계의 생명 활동과 불가사의의 신비를 보는 듯 했다. 언제 또 분출할지 모르는 화산이지만 지금은 관광객에게 위험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화산 견학과 호기심을 만족하게 해주는, 관광객을 유인하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 지금도 활동 중인, 불과 10년 전에 화산이 폭발하여

〈표 1〉 Sierra Negra Caldera 규모 비교

	응고롱고로	Sierra Negra	백두산
위치	탄자니아	갈라파고스	한국
길이(km)	16 × 19(km)	7.2 × 9.3(km)	3.5 × 4.5(km)
둘레	326km		14.4km
면적	539km <sup>2</sup>		9.2km <sup>2</sup>
깊이	600m	100~140m	384m
분출(최종)	약 250만 년 전	2005.10.22	1702.4.14

용암이 분출되었던, 세계에서 두 번째로 커다란 화산 분화구 앞에 서 있다. 세상에서 두 번째로 거대한 화산분화구를 지켜보는 지구 생물 종(種) 막내는 시공(時空)을 초월한 꿈의 세계를 더듬고 있는 것 같았다.

## IV. 산타크루스섬, 산타페섬

### 1. 산타크루스섬으로 선상 이동

갈라파고스 5일째, 이를 동안 머물렀던 이사벨라섬을 떠나 오늘은 산타크루스섬으로 이동한다.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야 했다. 05:40 배를 타고 단잠을 자는 사이 약 3시간이 지나 목적지에 닿았다. 시각은 08:40. 이곳은 산타크루스섬 Puerto Ayroa(아요라) 항구이다. 이사벨라섬에서 온 큰 배는 바로 부두에 대지 못하여 승객과 짐은 따로 작은 배에 옮겨 태워야 했다. 이 작은 배도 여기서는 Taxi라고 하며, 승객이 1\$씩 별도로 이용료를 내야 했다. 빵과 커피로 아침 식사를 하고 바로 산타페섬으로 이동했다. 빵을 먹고 있는 동안 이곳의 텃새인 다윈 빈치 새가 테이블 바로 옆까지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새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은 것 같았다.

### 2. 천연수족관, 스노클링 명소인 산타페섬

산타페섬은 스노클링의 명소로 알려졌지만 화려한 빛깔의 열대어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천연수족관 같았다. 둘레가 약 20km로 사람이 살지 않는 작은 섬이다. 주변 육지에는 선인장, 바닷가에는 맹그로브 숲 외에 다른 식생은 없어 보였다. 이곳은 깊숙한 만이 형성되어 스노클링 사이트로 최적지이며 만(灣)이 파도를 막아주고 물결이 잔잔하여 물고기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고 한다. 또한, 바다사자가 새끼를 낳고 키우기에 적합한 최적 서식지라고 한다. 마치 천연수족관과 같은 곳이다. 갈라파고스에서 세 번째 스노클링이라서 이제 스노클링에 익숙해졌고, 묘미를 느끼는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여행에서 이곳이 마지막 스노클링이다. 이제 semi pro가 된 우리는 모두가 한 마리 물고기가 다 되었다. 물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물고기가 많았다. 바다사자, 상어, 바다거북, 색색의 열대어도 함께 헤엄을 치고 동행을 했다. 사람을 봐도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지만, 도망가지도 않았다. 그저 바닷속 한 동료인 줄로 아는 것 같았다.

물속에서는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잘 보인다. 그러므로 곁에서 함께 수영하는 거북이나 바다사자를 만져보려고 하면 어느 팀 가이드를 막론하고 바로 쫓아와서 주의시키고, 2m 이상 거리

를 두도록 당부했다. 만(灣) 자체가 거대한 수족관인 것처럼形形色색의 수많은 물고기가 떼 지어 물려다니고 있었다. 그 사이로 우리는 물고기와 함께 수영하며 물결 따라 흘러 다녔다. 남미 대륙에서 1,000km 떨어진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 중 하나, 청옥 빛 갈라파고스 해역에서 한평생 문명의 때와 세속의 욕심에 찌든 삶이 스노클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염치없는 무례이고 청정해역을 오염시키는 행위인 듯싶기도 했다. 그런데도 너른 대양과 갈라파고스 물고기는 꽤넘하지 않고 이 세상을 함께 사는 동료로서 물속 동행을 함께 해주었다. 한때 잠시나마 갈라파고스 물고기처럼 청정해역에서 맑고 순결한 마음으로 바닷속을 누볐다.

16:00에 찰스 다윈 연구소 방문이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스노클링 시간을 줄이고 15:00경 푸에르토 아요라 항으로 귀향해야만 했다. 파란 수평선 위에 하얀 문게구름이 아득한 전설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항구로의 귀향 길에 배낚시를 하겠다고 낚싯대를 놓고 대어를 기대했지만, 성과는 제로였다. 귀향하는 보트가 지나갈 때 수많은 물새가 먹이활동을 하다가 배가 지나면 날아오르곤 했다. 이곳이 고기가 많은 곳인가 보다.

마지막 스노클링을 마치고 드디어 푸에르토 아요라 항에 도착했다. 이사벨라섬에서 야반도주하듯 새벽에 짐 챙겨 나와 급히 아침 식사를 하고, 다시 산타페 섬으로 스노클링을 떠났던 곳이다. 부두에 도착하여 찰스 다윈 연구소 방문을 서둘러야 했다. 부두에는 바다사자가 사람이 지나가도 미동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사람이 알아서 비켜 가야만 했다. 바다사자는 보기에 깔끔해 보이지만 곁으로 지나치면 불결한 냄새도 나고... 꼭 고운 모습만은 아니었다. 계절이 1월인데도 적도 아래라서인지 화려한 꽃나무 가로수, 페루 리마에서 만났던, 불타는 듯한 붉은 봉황목과 노란 황금빛에 빛나는 카시아 피스툴라(*Cassia fistula*)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림 21〉 산타페 섬의 수중 물고기



〈그림 22〉 봉황목

### 3. 찰스다윈연구소 방문

사전 예약에 따라 찰스다윈연구소를 방문했다. 연구소 매니저의 재단 성격과 활동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다. 갈라파고스를 방문하는 방문객으로부터 받는 1인당 입도비 100\$가 연구재단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늘어나는 관광객에 의한 자연 생태계 훼손 문제 또한 커다란 난제라고 했다. 찰스다윈연구소 재단 구성과 활동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이 연구소는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교육자, 자원봉사, 연구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원(自願)해 온 직원으로 구성된 팀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과학적 연구와 보존을 위한 환경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과학 연구와 감시 프로젝트는 주요 파트너인 갈라파고스 국립공원을 통해 수행되는데, 국립공원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자연과 천연자원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다. 찰스다윈연구소는 1964년에 설립되었으며, 갈라파고스 보존을 위한 교육적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다. 또한 자이언트 거북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설명을 듣고 난 후 거북사육장을 탐방했다. 이로써 갈라파고스에 있는 자이언트거북을 연구, 증식하는 두 군데의 사육장을 모두 방문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며칠 전에 방문했던 이사벨라섬에 있다. 찰스다윈연구소 안의 거북사육장 가는 길에 눈길을 끄는 시설이 있었다. 시설 안내판에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다. 살펴보니 한국의 협력, 지원에 의한 태양광발전소라고 써어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협력 노력과 위상이 보이는 듯해서 가슴이 뿌듯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안내판, 앨버트로스(albatross)를 소개하는 내용이였다. 앨버트로스는 골프 용어의 버디, 알바트로에서 들은 바 있는 새의 이름으로 세계적 희귀종인 새이다. 갈라파고스섬에 서식하는 앨버트로스는 1년에 1개의 알을 낳으며, 그 알이 포식자에게 먹히더라도 그 해에 다른 알을 낳지 않으며 한번 부부로 정해지면 평생 해



〈그림 23〉 한국 태양광 지원 사업 시설



〈그림 24〉 앨버트로스(albatross)

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앨버트로스는 몸길이 약 1.1m, 몸무게 8~11.5kg, 날개를 완전히 펼치면 4m 정도의 크기로 새 가운데 가장 날개가 길다고 한다.

갈라파고스에 체류한 지도 벌써 일주일이 되어간다. 갈라파고스 5일째 저녁, 갈라파고스 마지막 밤이기에 우리 일행은 이곳 현지인들이 많이 찾는 키오스코 거리에서 만찬회를 했다. 키오스코 거리는 우리나라 시장통 골목길과 같은 야외 식당가이다. 낮에는 평범한 시장 거리, 밤이 되면 식당가로 변신한다. 이곳 해안에서 잡은 고기를 통째로 구워낸 요리에 갈라파고스의 맥주, Pilsener를 마셨다. 내일 오전 자이언트 거북 방사장과 쌍둥이 분화구 탐방을 마치면 갈라파고스 탐방을 마무리한다. 내일 발트라 공항에 가서 갈라파고스를 이륙하므로 오늘 만찬이 갈라파고스 작별 만찬인 셈이다.

#### 4. 펠리컨 베이 어시장 아침 산책길

산타크루스섬의 첫날, 이래저래 바쁜 일정을 마치고 하룻밤 머문 숙소는 하얀 골목길이 정겨웠던 Pelican Bay Hotel이었다. 간밤에 마신 술도 껌 겹 것처럼 아침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이곳의 유명 볼거리 펠리컨 베이 어시장을 산책했다.

하늘에 균함새가 높이 나는가 하면 바로 바다 수면 위를 나는 균함새도 있었고, 전깃줄에 앉아 있는 균함새도 있었으니 진풍경이 아닐 수 없었다. 알고 보니 전깃줄 위의 균함새들은 바로 아래 어시장의 생선에 욕심을 내고 있었다. 이곳 어시장은 어부가 잡아 온 생선의 내장을 발라내는 1차 가공을 하며 팔기도 하는 곳이다. 어시장은 각양 각층의 손님들로 북적댔다. 고기를 막 잡아 온 어부, 생선을 손질하는 상인, 물건을 사러 나온 주민, 생선 처리하면서 나온 부산물 내장을 얻어먹고자 호시탐탐 노리는 균함새, 펠리컨, 바다사자. 이 장면을 사진에 담으려는 세계 각국의 관광객. 그야말로 펠리컨 베이 어시장은 다양한 손님들로 북적대는 요지경이었다. 상인들이 생선 내장을 발라내면서 이들과 바다사자에게 골고루 나눠주고 있었다. 그 앞에서 얼쩡대는 펠리컨과 바다사자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처럼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생선 손질을 하는 상인을 졸졸 따라다니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간혹 주인 몰래 어판대에서 생선을 물고 도망가다 들통 난 바다사자가 생선 주인으로부터 바가지 물벼락을 맞곤 하는 장면도 요지경 풍경 중 하나였다. 참 재미있는 곳이었다.

#### 5. 거북 방사 목장 방문

갈라파고스의 마지막 일정으로 거북 방사 목장 탐방길에 올랐다. 차를 타고 거북 방사 목장 안으로 들어가니 곳곳에는 거북이들이 이미 나와서 활동하고 있었다. 목장 입구 표지판에는 방목 거북이에



〈그림 25〉 방사목장 안의 자이언트 거북



〈그림 26〉 노란별수선

게 7피트(약 2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주의 사항이 적혀 있었다. 먼저 전시실에 들러 전시물 구경을 하면서 관람 시 주의 사항을 듣고 방사 목장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다. 우선 신발을 장화로 바꿔 신어야 한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방사장의 방역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 한다. 방사목장 안, 물이 고인 진흙탕에는 거북이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었다. 사철 더운 곳이라 더위를 피해서 모여든 것은 아닐 터이고, 물 있는 웅덩이를 좋아하는 것 같았다. 마치 거북이들이 mud pack을 하는 것 같았다. 머드 팩 중인 거북을 배경으로 아주 가까워서 한 컷 사진을 찍었다. 바짝 곁에 붙어도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은 자이언트거북이었지만 2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접근을 하지 않았을 뿐이다. 거대한 거북 옆에 서 있다는 것이 경이로웠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북이 받아들이는 것이다. 거북과 함께 흐르는 자연의 한순간을 같이 하는 것이다. 서로서로 경계 대상이 아닌 우호적 동료로서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 6. 쌍둥이분화구 Los Gemelos (Twin Craters), 노란별수선

거북 방사 목장을 탐방하고 다음 코스인 쌍둥이분화구, Los Gemelos (Twin Craters)를 답사했다. 도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분화구처럼 보이는 웅덩이가 있는데, 분화구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대한 용암터널 지반이 무너져 생긴, 함몰된 크레이터(Collapse crater)이다. 실제 분화구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각 변동과 침식으로부터 텅 빈 마그마 챔버의 화산 지붕이 무너졌을 때 만들어진 싱크 홀이라고 한다. 이 함몰지 바닥에는 '식물의 다윈 핀치'라 불리는 갈라파고스의 고유식물, 스칼레시아 숲(scalesia forests)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곳이 대표적인 갈라파고스의 스칼레시아 숲(Scalesia Forest)이라 한다. 관심을 끄는 식물이 있었다. 쌍둥이분화구 길옆에서 만난 식물, 노란별



수선(*Hypoxis aurea* Lour)이 아닐까 싶은 식물을 만난 것이다. 노란별수선은 1935. 5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에서 채집돼 일본 도쿄대학에 표본 1점이 보존되고 있는 것을 국내 식물학자인 이우철 박사가 찾아내 1985. 12월 한국식물분류학회지에 발표했던 종이다. 그러나 이 식물은 1935년 이후 국내외 식물학자에 의해 자생지가 확인되거나 채집이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 보고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이 식물, 노란별수선(*Hypoxis aurea* Lour)이 2003. 5월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일대에서 발견, 70여 년 만에 재발견되었다고 2007년 한라일보에 보도된 적이 있는 국내의 희귀식물이다. 노란별수선 외에도 이끼가 잔뜩 붙어 있는 스칼레시아 틸새에 이름 모를 난초가 자라고 있었고, 제주에서 본 적이 있는 흰달개비를 닮은 풀꽃도 쌍둥이분화구 길쭉에서 만났다.

## V. 발트라공항에서 키토공항으로

### 1. 발트라 공항으로 가는 선착장

거북방목장과 쌍둥이분화구라 불리는 Los Gemelos (Twin Craters)를 마지막으로 갈라파고스의 탐방을 마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른다. 산타크루스섬과 인접해 있는 작은 섬 발트라에 공항이 있다. 갈라파고스에서 남미 대륙을 오가려면 우리가 맨 처음 갈라파고스에 입도할 때 이용했던 산크리스토폴섬의 모레노 공항 아니면 오늘 출발하려고 하는 발트라 공항을 이용해야만 한다. 아쉽게도 산타크루스섬에서 발트라섬까지 연도교가 없어 요금을 내고 나룻배를 타고 건너야만 한다. 나룻배를 타고 건너와 되돌아보니 직선거리는 500m도 채 안 되는 거리이다. 자연보전을 위한 것일까? 공항과 산타크루스섬과의 간선도로에 연도교가 없어 오가는 항공기 승객이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었다.

### 2. 발트라 공항의 한국산 풍력발전기

짧은 거리의 바다를 건너 발트라 공항으로 가는 중이다. 주변에는 숲도 민가도 없는 거의 황량한 벌판이었다. 멀리 벌판 끝에 공항이 보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게 풍력발전기를 보았다.<sup>10)</sup>

10) 공직을 마치고 잠시 국내기업 Unison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다. 그때 회사가 갈라파고스에 국산 풍력발전기를 수출하여 건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위치가 어느 섬인 줄은 몰랐다. 하여 갈라파고스섬을 옮겨 다닐 때마다 은근히 풍력발전기를 찾았었는데 보지 못해 결국 못 보고 가나 싶었다. 그런데 갈라파고스를 작별하고 떠나려는 참에 이곳 발트라 공항에서 그 풍력발전기를 만난 것이다.

남미의 공항마다 삼성 Logo가 선명한 광고판과 공항 비행시간 게시 영상화면 모니터를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그런데 한국 기업 Unison의 Logo가 앞머리에 선명하게 새겨진 한국산 풍력발전기가 갈라파고스에 수출되어 산타크루스 발트라 공항 앞에서 돌아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자랑스러웠고 감동이라 아니 할 수 없었다. 적도 아래 외로운 섬, 남미 대륙에서 1,000km 떨어진 태평양의 갈라파고스섬에서 힘차게 돌아가는 한국산 풍력발전기 3대를 만나니 참으로 감격스러웠다. 비행기 출발 시각이 촉박하여 바로 밑에까지 가보지는 못하고 풍력발전기를 배경으로 사진 한 컷 찍고 작별해야만 했다.

공항의 각종 전자게시판에는 삼성의 로고가 자랑스럽게 돋보이고 공항 앞 별판에는 한국의 풍력발전기가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나니 갈라파고스의 산타크루스섬 발트라 공항이 낯설지 않아 보였다. 갈라파고스 산타크루스섬 발트라 공항 앞에 설치된 한국산 풍력발전기 3대의 위용이 돋보였다. 한국기업 유니슨이 제작, 수출한 풍력발전기. 한국이 외국에 수출한 첫 번째 풍력발전기일 것이다. 세찬 바람에 힘차게 돌아가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하얀 날개가 커다란 학의 날갯짓처럼 위용 있고 아름다워 보였다. 드디어 갈라파고스 탐방을 마치고 발트라 공항을 이륙했다.

### 3. 에콰도르 키토 공항 도착

갈라파고스 발트라 공항을 14:40에 이륙하여 에콰도르의 키토 공항에는 17:20에 도착했다. 갈라파고스와 키토 간에 시차가 1시간이니 비행시간은 두 시간 정도 소요된 셈이다.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는 해발고도 2,850m에 자리 잡은 적도직하(赤道直下)의 도시로서 인구 약 220만 명이다. 잉카 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오랜 도시로 1534년에 에스파냐의 식민도시가 되었다. 키토 공항에



〈그림 27〉 Unison 풍력발전기 (갈라파고스 발트라 공항)



〈그림 28〉 에콰도르 공항의 삼성 Logo

도착하니 이곳 역시 삼성의 logo를 곳곳에 볼 수 있어 세계적 기업의 삼성 면모를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이로써 5박 6일의 갈라파고스 생태탐방을 마무리했다. 이제 키토의 탐방을 마지막으로 약 4주에 걸친 남미 여행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다.

## VI. 귀국길 및 마무리

마지막으로 키토의 적도의 탑을 탐방하고 키토의 민속촌, Inti Nan Museo를 방문하고 나서 식물원에 들러 이곳의 식물을 살펴본 후 키토의 관광명소 바실리카 성당과 빠네시요 천사상(Virgen del Panecillo)을 탐방했다. 키토의 천사의 상(像)을 탐방하고 키토 공항으로 가는 도중 비가 억수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남미의 모든 아쉬움, 미련 다 빗물에 씻어내고 평상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늘의 뜻인가 싶었다.

귀국길은 출발의 역순, 페루의 리마로 가서 미국의 LA 공항, 한국의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2017.1.19. 20:20 페루 리마 행 비행기를 타고 키토 공항을 이륙, 2시간 20분 후 페루 리마 공항에 도착했다. 00:50 리마 공항을 이륙하여 9시간의 비행 후 LA 공항 도착 시각은 07:50, 서둘러 입·출국 수속을 마치고 13:15 출발 KAL을 타고 13시간 40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2017.1.21 18:40이었다. 지구 남반구인 중남미 페루를 출발 북반구인 미국 LA를 거쳐 대한민국 인천으로 오는 머나먼 길이었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살아 있는 박물관과 진화의 전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독특한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이다. 적도 부근에서 뜨겁게 달궈진 파나마 난류와 남쪽에서 올라오는 영양분이 풍부한 훔볼트 한류, 크롬웰 해류 등 세 해류가 섬 주위를 감싸기 때문에 한류와 난류에 사는 물고기들이 풍부한 해양생물의 보고라고도 한다. 또한, 각각의 섬은 고도와 면적, 방향에 따라 생태적 환경 차이가 매우 크고, 서로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차이점이 특정한 섬에 자생하는 특정한 종을 만들었고,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할 수 있게 되었다. 이곳 생물은 스스로 최선을 다해 환경에 적응해서 변신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적자생존의 생생한 현장이다.

갈라파고스의 이구아나는 애초에는 선인장을 먹고 살았지만 척박한 땅, 화산섬에서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선인장만 먹고 살기에는 선인장이 너무도 부족한 데다 어린 선인장은 가시가 많고 큰 선인장은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해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갔고 바다와 바위를 오가며 해조류를 뜯어 먹고 살도록 진화해야만 했다. 갈라파고스의 선인장 또한 거북

이와 이구아나에게 먹히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 어릴 때는 몸에 가시를 내고 자라면서 줄기가 나무처럼 단단해져야만 했다. 이곳 특수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물의 특별한 진화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갈라파고스이다.

지구 최고의 특산종 비율을 자랑하는 갈라파고스,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반도 면적에 필적하는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자연생태계 보전에 노력하는, 천적 없는 동물 세계 갈라파고스이다. 1535년 무인도 갈라파고스섬을 처음 발견한 이후, 사람 발길이 끊이지 않아 유입된 외래식물이 800종을 넘고, 인구 25,000명의 섬이 되었다. 연간 관광객 수가 상주인구의 10배 수준을 초과하여 매년 늘고 있고, 외국인 1인당 받는 입도비 100\$이 국립공원 운영비의 재원이라서 관광객을 줄일 수도 없는 딱한 처지에 있다. 면적은 8,010km<sup>2</sup>로 전라북도과 비슷한 크기이다. 하지만 50년대만 해도 주민 수가 1천여 명으로 사실상 무인도나 다름없을 정도의 섬이었으나, 점차 관광지화되면서 90년대에는 인구 1만명을 넘겼고, 2010년 통계에서는 25,000명까지 증가한 갈라파고스. 이 섬 생태계가 지탱할 수 있는 연평균 관광객 규모는 12,000명으로 추산됐지만 2015년 관광객 수가 220,000명이었다고 한다. 주민 인구의 10배 규모인 관광객은 외래종 유입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갈라파고스의 생태계 훼손과 파괴가 너무도 뻔해 보여 앞으로 얼마만큼 원형 보존이 될 수 있을지?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을 낳게 한 갈라파고스의 원시 상태를 다시는 보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갈라파고스섬에 서서

오늘도 적도의 태양은 붉게 솟았다  
태평양은 임인 듯 하늘을 안았다.  
시커먼 화산암 별판에 서서  
하늘을 보고 땅을 본다.  
새 땅에 새 기운이 넘실거린다.

풀도 꽃도 없는 거친 원시의 땅,  
모진 생명 줄기 선인장만 서 있다.  
무한 넘쳐나는 생명(生靈)

거칠고 투박한 선인장 별판에 서서  
두 팔 벌려 함께 서 본다.

문명에 절고 찌든 허물을 벗자.  
꿈꾸는 번뇌의 사유(思惟)를 털자.  
원초적 순수의 생령(生靈) 덩어리  
거칠고 간결한 선인장처럼  
두 팔 벌려 하늘을 본다.

태평양이 밀려오는 파도 소리  
월시의 자연 속에서  
원초(原初)의 나를 찾는다.  
시원(始原)의 한갓 들짐승으로 뛰노는  
그런 나를 찾는다.

( 2017. 1. 16 갈라파고스의 화산암 너덜경 별판에서)



〈그림 29〉 갈라파고스의 화산암 너덜경 별판